

2022년 7월 13일 시행

국가공무원 7급 PSAT 언어논리 해설

이유진/최형우/황서연/박유정/설영웅



문 1. ⑤

[정답해설]

⑤ 서희는 고려가 거란에 군사적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소손녕이 군대를 이끌고 돌아갈 것이라고 보았다.

> 둘째 문단에 따르면 서희는 옛 고구려의 땅이 거란의 것이므로 군사를 일으켜 그 땅을 찾아가고자 한다는 거란의 서신에 대해 핑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희는 고려가 병력을 동원해 거란을 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언질을 주면 소손녕이 철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답해설]

① 거란은 압록강 유역에 살던 여진족이 고려의 백성이라고 주장하였다.

> 거란은 고려를 압박해 앞으로 송을 군사적으로 돕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자 했다. 이를 위해 거란은 여진족이 사는 땅을 여러 차례 침범해 대군을 고려로 보내는 데 적합한 길을 확보했을 뿐, 여진족이 고려의 백성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② 여진족은 발해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란과 함께 고려를 공격하였다.

> 둘째 문단에 따르면 여진족은 발해가 멸망한 후에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채 독자적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여진족이 발해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란과 함께 고려를 공격하였다는 것은 옳지 않다.

③ 소손녕은 압록강 유역의 여진족 땅을 빼앗아 강동 6주를 둔 후 그곳을 고려에 넘겼다.

> 셋째 문단에 따르면 소손녕과 서희의 협상 이후에 고려는 병력을 보내 압록강 하류의 여진족 땅까지 밀고 들어가 영토를 넓히고 그 지역에 강동 6주를 두었다. 따라서 소손녕이 여진족 땅을 빼앗아 강동 6주를 둔 후에 그곳을 고려에 넘겼다는 것은 옳지 않다.

④ 고려는 압록강 하류 유역에 있는 여진족의 땅으로 세력을 확대한 거란을 공격하고자 송 태종과 군사동맹을 맺었다.

> 셋째 문단에 따르면 소손녕은 여진족 땅을 고려가 지배할 수 있게 묵인해 준다면, 거란과 국교를 맺고 거란과 송이 싸울 때 송을 군사적으로 돕지 않겠다는 서희의 요구를 수용하고 퇴각했다. 따라서 고려가 거란을 공격하고자 송 태종과 군사동맹을 맺었다는 것은 옳지 않다.

문 2. ①

[정답해설]

① 해주 앞바다에 나타나 조선군과 싸운 대마도의 왜구가 요동반도를 향해 복상한 뒤 이종무의 군대가 대마도로 건너갔다.

> 첫째 문단에 따르면 대마도의 왜구는 황해도 해주 앞바다에 나타나 조선군과 교전을 벌인 후 요동반도 방향으로 복상했다. 그 이후에 태종이 이종무에게 대마도를 정벌하라고 명하자 이종무는 군사를 모아 대마도 정벌을 위해 대마도로 건너갔다.

[오답해설]

② 조선이 왜구의 본거지인 대마도를 공격하기로 하자 명의 군대도 대마도까지 가서 정벌에 참여하였다.

> 셋째 문단에 따르면 대마도의 왜구가 명의 땅인 요동반도에 상륙했다가 크게 패배하여 병사가 많이 죽어 세력이 꺾였다는 것은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종무가 이끄는 조선군이 대마도 정벌을 위해 대마도에 건너가 공격하는 과정에서 명의 군대도 참여하였다는 것은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③ 이종무는 세종이 대마도에 보내는 사절단에 포함되어 대마도를 여러 차례 방문하였다.

> 지문에는 세종이 대마도에 보낸 사절단에 관한 내용은 서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종무가 세종이 대마도에 보내는 사절단에 포함되어 대마도를 여러 차례 방문했다는 것은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④ 태종은 대마도 정벌을 준비하였지만, 세종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 첫째 문단에 따르면 태종이 이종무에게 대마도를 정벌하라고 명하였고 이에 따라 이종무는 군사를 모아 대마도 정벌에 나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종의 반대로 대마도 정벌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은 옳지 않다. 또한 지문에서 대마도 정벌에 관한 세종의 의사는 제시되지 않았다.

⑤ 조선군이 대마도주를 사로잡기 위해 상륙하였다가 패배한 곳은 견내량이다.

> 둘째 문단에 따르면 조선군이 대마도주를 사로잡아 항복을 받아내기로 하고 '니로'라는 곳에 병력을 상륙시켰지만 매복한 적의 공격으로 크게 패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견내량'은 패배한 이후에 이종무가 군사를 거두어 돌아온 곳이다.

문 3. ①

[정답해설]

① 혐오는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았다.

> 셋째 문단에 따르면 대다수의 독일인들은 유대인을 혐오스러운 적대자로 설정한 히틀러의 야만적인 정치적 선동에 동의를 표했다. 이를 통해 혐오가 정치적 선동의 도구로 이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해설]

②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도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둘째 문단에서 혐오는 특정 집단을 오염물인 것처럼 취급한다는 것을 통해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도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은 비인간적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 셋째 문단에 따르면 유대인은 깨끗하고 건강한 독일 민족의 숨겨진, 썩어 가는 시체 속의 구더기라고 표현됐고, 암세포, 종양, 세균 등 비인간적 존재로 묘사되었다.

④ 혐오의 감정을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다.

> 첫째 문단에 따르면 혐오의 감정을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영미법의 오래된 역사에서 낫설지 않다고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혐오의 감정을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인간에 대한 혐오의 감정은 타자를 혐오함으로써 주체가 얻을 수 있는 심리적인 만족감과 연관되어 있다.

> 둘째 문단에 따르면 혐오는 특정 집단(타자)을 오염물인 것처럼 취급하고 자신은 오염되지 않은 쪽에 속함으로써 얻게 되는 심리적인 우월감 및 만족감과 연결되어 있다.

문 4. ②

[정답해설]

② 계획적 진부화는 기존 제품과 동일한 중고품의 경쟁력을 높인다.

> 둘째 문단에 따르면 계획적 진부화는 중고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존 제품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다.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면, 중고품 시장에서 판매되는 기존 제품은 진부화되고 그 경쟁력도 하락한다.

[오답해설]

① 계획적 진부화로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다.

> 셋째 문단에 따르면 계획적 진부화로 인해 기존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크게 다를 것 없는 신제품 구입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할 수 있다.

③ 계획적 진부화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행되기도 한다.

> 둘째 문단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그 변화 속도도 빨라지면서 기업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계획적 진부화를 수행하기도 한다.

④ 계획적 진부화를 통해 기업은 기존 제품보다 비싼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 둘째 문단에 따르면 기업은 기존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기 곤란한 경우 계획적 진부화를 통해 인상된 가격을 매길 수 있다.

⑤ 계획적 진부화로 인하여 제품의 실제 사용 기간은 물리적으로 사용 가능한 수명보다 짧아질 수 있다.

> 둘째 문단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제품의 사용 기간을 결정짓는 요인은 기능적 특성이나 물리적 특성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심리적 특성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셋째 문단에서 기존 제품이 사용 가능한 상황에서도 신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자극하면 구매 의사가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을 통해 계획적 진부화로 인하여 제품의 실제 사용 기간이 물리적으로 사용 가능한 수명보다 짧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문 5. ②

[정답해설]

② 국방 서비스를 소비하는 모든 국민에게 그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다면, 그 서비스는 비경합적으로 소비될 수 없다.

> 국방 서비스를 소비하는 모든 국민에게 그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더라도 국방 서비스는 누군가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을 줄어줄게 하는 경합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비경합적으로 소비될 수 있다. 또한 재화나 용역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경합성보다는 배제성과 관련이 있다.

[오답해설]

① 유료 공연에서 일정한 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공연장 입장을 차단한다면, 그 공연은 배제적으로 소비될 수 있다.

> 둘째 문단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이 비배제적으로 소비된다는 것은 누군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그 재화나 용역을 소비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반대로 배제적으로 소비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재화나 용역을 소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료 공연에서 일정한 돈, 즉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의 공연장 입장을 차단한다면 그 공연은 배제적으로 소비된다고 할 수 있다.

③ 이용할 수 있는 수가 한정된 여객기 좌석은 경합적으로 소비될 수 있다.

> 첫째 문단에 따르면 경합적으로 소비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용할 수 있는 수가 한정된 여객기 좌석은 누군가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므로 경합적으로 소비된다고 할 수 있다.

④ 무임승차를 쉽게 방지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은 과소 생산될 수 있다.

> 셋째 문단에 따르면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방식으로 소비되는 국방 서비스의 생산과 배분을 시장에서 할 경우, 소비자는 무임승차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국방 서비스가 과소 생산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비배제적으로 소비되어 무임승차를 쉽게 방지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은 과소 생산될 수 있다.

⑤ 라디오 방송 서비스는 여러 사람이 비경합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

> 첫째 문단에 따르면 라디오 방송 서비스는 누군가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을 줄어줄게 하지 않으므로 여러 사람이 비경합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

문 6. ⑤

[정답해설]

⑤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동독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가 큰 역할을 하였다.

> 지문은 독일 통일의 과정을 시간에 따라 설명하며 이러한 통일 과정에서 동독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고, 통일 과정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독 주민들의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서술하였다. 즉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동독 주민들의 주체적인 참여가 큰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 지문의 핵심 논지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해설]

① 자유총선거에서 동독 주민들은 점진적 통일보다 급속한 통일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자유총선거에서 동독 주민들이 급속한 통일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 ‘독일동맹’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자유총선거에서의 독일동맹의 승리, 즉 급속한 통일을 지지했다는 것만을 가지고는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독일 통일은 동독이 일방적으로 서독에 흡수되었다는 점에서 흔히 흡수 통일이라고 부른다.

> 독일 통일을 흔히 흡수 통일이라고 부르긴 하나, 오히려 통일 과정에서 동독 주민들이 보여준 행동을 고려할 때 오해의 여지를 주는 용어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는 지문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독일 통일은 분단국가가 합의된 절차를 거쳐 통일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독일 통일이 동독과 서독의 합의를 거쳐 ‘통화·경제·사회보장동맹의 창설에 관한 조약’, ‘통일조약’ 등을 체결하여 통일을 이루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문에서는 이러한 점을 사실로서 나열하였을 뿐, 이것이 지문의 핵심적인 논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독일 통일 전부터 서독의 정당은 물론 개인도 동독의 선거에 개입할 수 있었다.

> 독일 통일 전에 치러진 동독 자유총선거에는 서독 사민당이나 서독 기민당 등 서독의 정당이 개입하기도 하였고 서독의 정치인이 유세 지원을 하기도 하였으나, 서독의 정당 및 개인의 선거 개입 가능 여부 자체가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아우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 7. ①

[정답해설]

① (가): 인체 비례에 숨겨진 신의 진리를 구현한

(나): 조형미에 대한 동서양의 안목이 유사하였다

>

(가): 서양 사람들은 옛날부터 신이 자연 속에 진리를 감추어 놓았다고 믿고 그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그중 가장 아름다운 진리로 여긴 것은 ‘인체 비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완벽한 인체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경우에도 인체의 비례와 가장 기본적인 기하 도형이 관련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인체 비례도’를 그리기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르네상스 시대의 건축가들도 기본적인 기하 도형으로 건축물을 디자인 하면 다빈치와 같이 인체의 비례와 관련된, 나아가 신이 숨겨둔 진리인 인체 비례를 구현하여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따라서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체 비례에 숨겨진 신의 진리를 구현한’이다.

(나): 둘째 문단에서는 동양에서 ‘구고현법’을 건축물 축조에 활용하였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건축물 축조 시 3:4:5 비례의 직각삼각형을 이용하여 축조하는 방식인데, 이 삼각형이 고대 서양에서 신성불가침의 삼각형이라 불렸던 것과 동일한 비례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즉 동서양이 동일한 비례를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는 동서양이 건축에 있어 비슷한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나)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형미에 대한 동서양의 안목이 유사하였다’이다.

[오답해설]

(가): 신의 진리를 넘어서는 인간의 진리를 구현한

> 서양 사람들은 신이 자연 속에 감추어둔 진리를 찾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 인체 비례를 가장 아름다운 진리의 정수로 찾아내었다. 그러나 이것은 신의 진리를 찾아낸 것에 해당할 뿐, 신의 진리를 넘어서는 인간의 진리를 구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나): 인체 실측에 대한 동서양의 계산법이 동일하였다

> 동양에서 사용하던 ‘구고현법’은 인체의 실측을 이용하여 3:4:5의 직각삼각형을 만든 것이다. 서양에서의 신성불가침의 삼각형 또한 구고현법의 삼각형과 동일한 비례를 갖긴 하나 인체의 실측을 이용하여 비율을 설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나): 건축물에 대한 동서양의 공간 활용법이 유사하였다

> 동양과 서양 모두 3:4:5의 직각삼각형의 비례를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삼은 비례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공간의 활용법까지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문 8. ⑤

[정답해설]

⑤ ㉠을 “실시 이후부터 결핵 사망률이 크게 증가했던 것”으로 수정한다.

> 마지막 문단은 IMF의 지원을 받은 국가와 그렇지 않은 슬로베니아의 결핵 사망률을 비교하여 IMF 구조조정 실시 여부와 결핵 사망률이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는 IMF 구조조정이 결핵 사망률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구조조정 ‘실시 이후’에 결핵 발생률이 증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은 ‘실시 이후부터 결핵 사망률이 크게 증가했던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해설]

① ㉡을 “자본주의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지원을 받는 일”로 수정한다.

> 1991년 냉전 체제가 붕괴되면서 동유럽의 독립 국가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였다. 그 이후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경험하며 IMF의 자금 지원까지 받게 되었다고 한다. 즉 ‘독립 이후 갑작스럽게 도입한 자본주의 시스템에 적응하는 일’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은 수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② ㉢을 “자본주의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으로 수정한다.

> ㉢의 다음 문장인 ‘즉 경제 체제의 변화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는 해당 국가 국민의 평균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 경제 체제 변화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를 들여왔기 때문에, 즉 경제 체제가 변화했기 때문에 수명이 줄어 들었다는 것에 대한 반박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반박을 하고자 하는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경제학자들일 것이다. 따라서 ㉢은 수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③ ㉣을 “수출입과 같은 국제 경제적 요소”로 수정한다.

> 둘째 문단에 따르면 해당 국가 국민의 평균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경제 체제의 변화와는 관련이 없다. 그러나 ‘수출입과 같은 국제 경제적 요소’로 수정할 경우, 경제 체제의 변화로 인하여 수명이 감소한 것이 되므로 문맥에 맞지 않는다. 경제 체제의 변화와 관련이 없는 이유가 수명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이 문맥상 적절하므로 ㉣은 수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④ ㉤을 “IMF의 자금 지원 직후 경제 성장률이 상승한 국가와 하락한 국가”로 수정한다.

> 셋째 문단에 따르면 독립한 동유럽 국가 중 IMF의 지원을 받은 대부분의 국가와 IMF가 아닌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은 슬로베니아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실시 여부를 비교하고 있다. 따라서 ㉤은 수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만약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IMF의 자금 지원 직후 경제 성장률을 비교한 내용은 지문에서 찾아볼 수 없으므로 수정한 내용이 ㉤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문 9. ①

[정답해설]

① 일반 수험생 중 유증상자는 KF80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를 수 없다.

> <표>에 따르면 일반 수험생 중 유증상자는 소형 강의실에서 시험을 보게 되며, 소형 강의실에서는 KF99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이는 권장 사항일 뿐 의무 사항은 아니므로 일반 수험생 중 유증상자는 KF99 마스크가 아닌 KF80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오답해설]

② 일반 수험생 중 무증상자는 KF80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다.

> <표>에 따르면 일반 수험생 중 무증상자는 중대형 강의실에서 시험을 보게 되며, 중대형 강의실에서는 KF94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이는 권장 사항일 뿐 의무 사항은 아니므로 일반 수험생 중 무증상자는 KF94 마스크가 아닌 KF80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다.

③ 자가격리 수험생 중 유증상자는 KF99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다.

> <표>에 따르면 자가격리 수험생 중 유증상자는 특별 방역 시험장 중 외부 차단 1인용 부스에서 시험을 보게 되며, 이러한 특별 방역 시험장에서는 KF99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④ 자가격리 수험생 중 무증상자는 KF94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를 수 없다.

> <표>에 따르면 자가격리 수험생 중 무증상자는 특별 방역 시험장 중 회의실에서 시험을 보게 되며, 이러한 특별 방역 시험장에서는 KF99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 규정에 따르면, 특정 등급의 마스크 의무 착용을 명시한 경우 해당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마스크 착용은 가능하지만 낮은 등급의 마스크 착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가격리 수험생 중 무증상자는 KF99 등급보다 낮은 KF94 등급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를 수 없다.

⑤ 확진 수험생은 생활치료센터장이 허용하는 경우 KF80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다.

> <표>에 따르면 확진 수험생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시험을 보게 되며, 생활치료센터에서는 각 센터장이 내린 지침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진 수험생은 생활치료센터장이 허용하는 경우 KF80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다.

문 10. ③

[정답해설]

ㄱ. 고병원성 AI 항목의 “8건”을 “5건”으로 수정한다.

> <표>는 야생 조류 AI 바이러스 검출 현황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야생 조류가 아닌 가금류 AI 바이러스 검출 사례는 건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기도 3건, 충남 2건의 야생 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사례만이 표에 기재되어야 한다.

ㄴ. “바이러스 미분리” 항목을 삭제한다.

> 두 번째 문단에 따르면 야생 조류 AI 바이러스 검출 현황은 고병원성 AI, 저병원성 AI, 검사 중으로 분류하고 바이러스 미분리는 야생 조류 AI 바이러스 검출 현황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바이러스 미분리” 항목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한 수정방안이다.

[오답해설]

ㄷ. 검사 중 항목의 “9건”을 “8건”으로 수정한다.

> 둘째 문단에 따르면 아직 검사 중인 야생 조류 AI 바이러스는 9건이며, 그중 하나인 제주도 하도리의 경우 11월 22일에 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표>는 2020년 10월 25일부터 2020년 11월 21일까지의 검출 현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제주도 하도리는 검사 중 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검사 중인 것은 8건이 아니라 9건이다.



문 11. ④

[정답해설]

ㄴ. C의 주장은 화장품의 안전성 검사를 위한 동물실험의 금지를 촉구하는 캠페인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 C는 ‘인간 존엄성’이 인간 중심적 견해, 종족주의의 산물이며, 인간 외 다른 존재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인간이라면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폭력적 처사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된다며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실험의 금지를 촉구하는 캠페인의 근거로 적절하다.

ㄷ. B와 C는 인간에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B는 ‘인간의 존엄성’이 종교적 문헌의 영향이라며 신이 인간에게 독특한 지위를 부여하였다는 믿음이 인간이 스스로를 지나치게 높게 보도록 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C는 ‘인간의 존엄성’이 ‘인간이 이성적 존재임’을 들어 인간 중심적인 견해를 옹호해 온 근대 휴머니즘의 유산이라 비판하였다. 따라서 B와 C는 모두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오답해설]

ㄱ.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존엄사를 인정한 연명의료 결정법의 시행은 A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사례이다.

> A는 ‘존엄성’이 존엄사를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논증 모두에서 각각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존엄성’이 불명료하고 무용한 개념이라 비판하고 있다. A의 주장을 약화하려면 ‘존엄성’의 개념이 명료하다거나 유용하다는 사례가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존엄사를 인정한 연명의료 결정법의 시행’ 자체는 A에서 주장한 ‘존엄성의 불명료함과 무용함’을 약화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다.

문 12. ㉔

[정답해설]

ㄱ. 냉동 보관된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 태어난 사람의 경우를 고려하면, ㉔은 거짓이다.

> ‘나를 있게 하는 것은 특정한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냉동 보관된 정자와 난자의 수정이라면 특정 정자와 난자는 이미 선택된 상태에서 수정의 시간, 즉 형제가 아닌 ‘나’라는 존재의 시기가 개인의 선택으로 좌우될 수 있다. 따라서 ‘내가 더 일찍 태어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말은 거짓이 된다.

ㄴ. ㉔에 “어떤 사건이 가능하면, 그것의 발생을 상상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추가하면, ㉔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어떤 사건이 가능하면, 그것의 발생을 상상할 수 있다’면, 그 대우인 ‘어떤 사건의 발생을 상상할 수 없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명제가 성립한다. 따라서 ‘내가 더 일찍 태어나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면, ‘내가 더 일찍 태어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ㄷ. ㉔에 “태어나기 이전의 비존재가 나쁘다면, 내가 더 일찍 태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추가하면, ㉔의 부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태어나기 이전의 비존재가 나쁘다’는 전제에, ‘태어나기 이전의 비존재가 나쁘다면, 내가 더 일찍 태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추가한다면 ㉔의 부정인 ‘내가 더 일찍 태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적절하다.

문 13. ㉓

[정답해설]

(가): 어떤 것이 우리가 원하는 이익을 얻는 최선의 수단이라면 우리에게는 그것을 실행할 의무와 필요성이 있다

(나): 모든 종은 그 자체가 본래부터 고유의 가치를 지니기

>

(가): 첫째 문단에서 A는 두 가지 전제를 통해 ‘우리에게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할 의무와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제시된 첫 번째 전제가 ‘생물 다양성이 우리가 원하는 이익을 얻는 최선의 수단이다’이므로 (가)에 들어갈 두 번째 전제는 ‘어떤 것이 우리가 원하는 이익을 얻는 최선의 수단이라면 이를 보존할 의무와 필요성이 있다’에 상응하는 내용이 들어 가야 한다.

(나): 마지막 문단에서 C는 대상의 ‘내재적 가치’를 근거로 모든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재적 가치’는 그 대상이 그 자체로 본래부터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유한 가치라 하였다. 따라서 ‘모든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려면 (나)에는 ‘모든 종은 그 자체로 본래부터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유적 가치가 있다’에 상응하는 내용이 들어 가야 한다.



문 14. ②

[정답해설]

ㄷ.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생명체가 도구적 가치를 가지느냐에 대한 A와 C의 평가는 양립할 수 있다.

> A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이 '이익'을 얻는 최선의 수단이라 하였다. 이는 생명체의 도구적 가치에 대해 인정하는 입장이다. C가 '모든 종이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은 '도구적 가치'가 아니라 '내재적 가치'에 근거한 것이지만, C도 '도구적 가치'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생명체가 도구적 가치를 가지느냐'에 대한 A와 C의 입장은 양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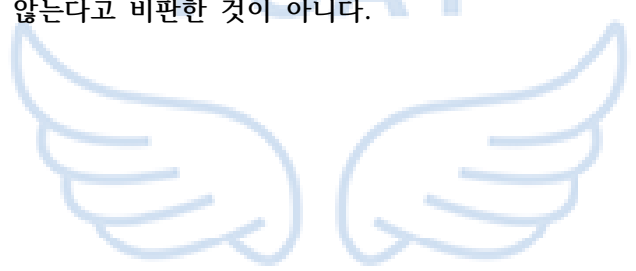
[오답해설]

ㄱ. A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B는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 A는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이익을 얻는 최선의 수단'이라는 '도구적 정당화'를 통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B는 '생물 다양성 보존이 우리가 원하는 이익을 얻는 최선의 수단이 아니'라며 A의 전제를 부정하고 있다. 하지만 B는 A가 도구적 정당화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일 뿐,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ㄴ. B는 A의 두 전제가 참이더라도 A의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 B는 A의 첫 번째 전제를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B는 A의 두 전제가 참이더라도 A의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이 아니다.



문 15. ②

[정답해설]

ㄷ. 갑의 입장에서 어떤 증거가 주어진 가설을 입증하는 정도가 작더라도, 을의 입장에서 그 증거가 해당 가설을 입증할 수 있다.

> 갑의 입장에서 어떤 증거가 주어진 가설을 입증하는 정도가 작더라도, 즉 어떠한 증거가 가설이 참일 확률을 아주 미세하게 증가시킬지라도, 그 결과로 가설이 참일 확률이 $1/2$ 이상이 된다면 을의 입장에서 그 증거가 해당 가설을 입증할 수 있게 된다.

[오답해설]

ㄱ. 갑의 입장에서, 증거 발견 후 가설의 확률 증가분이 없다면 그 증거가 해당 가설을 입증하지 못한다.

> 갑의 입장에서, 증거 발견 후 가설의 확률 증가분이 있다면 증거가 가설을 입증한다. 그런데 ‘증거 발견 후 가설의 확률 증가분이 없다’고 해서 ‘그 증거가 해당 가설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전건을 부정한다고 해서 후건의 부정이 도출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이는 전건 부정의 오류이다. ★

ㄴ. 을의 입장에서, 어떤 증거가 주어진 가설을 입증할 경우 그 증거 획득 이번 해당 가설이 참일 확률을 $1/2$ 보다 크다.

> 을의 입장에서, 어떤 증거가 주어진 가설을 입증한다면 그 증거 획득 ‘이후에’ 해당 가설이 참일 확률이 $1/2$ 보다 큰 것이다. 증거 획득 ‘이전’ 해당 가설이 참일 확률이 $1/2$ 보다 큰지는 알 수 없다.



문 16. ⑤

[정답해설]

⑤ 확인 숫자 앞의 아홉 개의 숫자에 정해진 가중치를 곱하여 합한 값이 11의 배수인 ISBN - 10이 유효하다면 그 확인 숫자는 반드시 0이어야 한다.

> ISBN-10은 총 10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지문에 따르면 ISBN - 10이 유효한 것이라면 이 ISBN - 10의 열 개 숫자에 각각 순서대로 10, 9, ..., 2, 1의 가중치를 곱해서 각 곱셈의 값을 모두 더한 값이 반드시 11로 나누어떨어져야 한다. 맨 마지막 숫자인 확인 숫자의 앞의 9자리에 각각 10, 9, ..., 2를 곱하여 더한 값이 이미 11로 나누어떨어진다면, 0부터 10까지 들어갈 수 있는 확인 숫자에 1을 곱하였을 때 11의 배수가 나오거나 0이 나와야지만 총합이 11로 나누어떨어질 수 있다. 0부터 10까지의 숫자에 1을 곱하였을 때 11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 경우 확인 숫자는 반드시 0이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오답해설]

① ISBN - 10의 첫 번째 부분에 있는 숫자가 같으면 같은 나라에서 출판된 책이다.

> ISBN-10의 첫 번째 부분은 책이 출판된 국가 또는 언어 권역을 나타낸다. 대한민국은 89의 값을 가지지만, 다른 예시를 살펴보면 영국이 아닌 '영어권'은 0을, 프랑스가 아닌 '프랑스어권'은 2를 가진다. 즉 첫 번째 부분의 숫자가 같으면 같은 나라에서 출판된 책일 수,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 중 다른 나라의 책일 수도 있는 것이다.

② 임의의 책의 ISBN - 10에 숫자 3자리를 추가하면 그 책의 ISBN - 13을 얻는다.

> ISBN-10이 부여된 임의의 책은 2006년까지 출판된 도서에 해당하며, ISBN-13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2007년 이후에 출판된 도서여야 한다. 따라서 ISBN-10에 숫자 3자리를 추가한다고 해서 그 책의 ISBN-13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ISBN - 10이 '0 - 285 - 00424 - 7'인 책은 해당 출판사에서 424번째로 출판한 책이다.

> ISBN-10의 세 번째 부분은 출판사에서 그 책에 임의로 붙인 번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선지의 세 번째 부분인 00424는 출판사에서 424번째로 출판한 책이 아닌 임의로 부여한 번호이다.

④ ISBN - 10의 두 번째 부분에 있는 숫자가 같은 서로 다른 두 권의 책은 동일한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이다.

> ISBN-10의 두 번째 부분의 숫자는 국가별 ISBN 기관에서 그 국가에 있는 각 출판사에 할당한 번호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별로 출판사에 할당한 번호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다른 출판사가 같은 두 번째 부분의 숫자를 할당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③번 선지를 예로 들었을 때 두 번째 부분이 똑같이 285이더라도 국가가 달라 첫 번째 부분의 숫자가 다르면 서로 다른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문 17. ④

[정답해설]

조건을 기호화하면 다음과 같다.

- (1) $A \rightarrow \sim B$
- (2) $\sim B \rightarrow \sim C$
- (3) $\sim D \rightarrow C$
- (4) $\sim A \rightarrow \sim E$
- (5) $\sim E \rightarrow \sim C$

(1)과 (2)의 조건을 결합하면 (1)' $A \rightarrow \sim C$ 의 조건이, (4)와 (5)의 조건을 결합하면 (2)' $\sim A \rightarrow \sim C$ 의 조건이 도출된다. (1)'과 (2)'의 조건에서 딜레마(양도 논법)에 의해 $\sim C$ 라는 결론이 나온다. (3)의 대우 $\sim C \rightarrow D$ 의 전건이 긍정되므로 후건인 D가 반드시 도출된다. 따라서 값이 반드시 수강해야 할 과목은 D이다.

※ 양도 논법: 『철학』 대전제가 두 개의 가언적 명제의 연언(連言)으로 되어 있고, 소전제가 대전제의 두 전건을 선언적으로 긍정하든가 혹은 두 후건을 선언적으로 부정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삼단 논법. 예를 들면, '네가 만일 정직하면 세인이 증오할 것이고, 만일 부정직하면 신이 증오할 것이다. 너는 정직하든가 또는 부정직하다. 그러므로 너는 세인의 증오를 받든지 신의 증오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즉 딜레마, 양각 논법, 이중체. - “양도 논법”, 『표준국어대사전』



문 18. ③

조건을 기호화하면 다음과 같다.

(1) $A \wedge D$

(2) $\sim(B \wedge D)$

(3) $A \vee B \rightarrow \sim C$

(4) $\sim(A \rightarrow \sim B) = \sim(\sim A \vee \sim B) = A \wedge B$

[정답해설]

ㄱ. 네 종류 중 세 종류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는 없다.

> 네 종류 중 세 종류의 자격증을 가지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이다.

- A, B, C를 소지하는 경우

- A, B, D를 소지하는 경우

- A, C, D를 소지하는 경우

- B, C, D를 소지하는 경우

첫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는 조건 (3)에 어긋나며 두 번째 경우와 네 번째 경우는 조건 (2)에 어긋난다. 따라서 '네 종류 중 세 종류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후보자는 없다'는 명제는 반드시 참이다.

ㄴ. 어떤 후보자는 B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다른 후보자는 D를 가지고 있지 않다.

>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 조건 (2)는 $\sim B \vee \sim D$ 가 되며 이는 '어떤 후보자는 B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다른 후보자는 D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 드모르간의 법칙: 『수학』 집합 A와 B의 여집합을 A'와 B'라고 하고, 그 합집합 $A \cup B$ 와 교집합 $A \cap B$ 의 여집합을 $(A \cup B)'$ 와 $(A \cap B)'$ 라고 할 때, $(A \cup B)' = A' \cap B'$ 와 $(A \cap B)' = A' \cup B'$ 라는 법칙. - "드모르간의 법칙", 『표준국어대사전』

[오답해설]

ㄷ. D를 가지고 있지 않은 후보자는 누구나 C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네 종류 중 한 종류의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후보자가 있다.

> 'D를 가지고 있지 않은 후보자는 누구나 C를 가지고 있지 않다'를 기호화하면 $\sim D \rightarrow \sim C$ 가 되고 이를 대우 취하면 $C \rightarrow D$ 가 된다. 즉 C를 가진 후보자는 항상 D를 가지므로 네 종류 중 한 종류의 자격증만 가지려면 A만 또는 B만 또는 D만을 소지해야 한다. 세 가지 경우 모두 가능한 경우이기는 하나, 한 종류의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후보자가 없어도 주어진 조건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본 명제는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다.

문 19. ④

글의 내용을 기호화하면 다음과 같다.

- (1) 민원→홍보
- (2) $\sim(\text{홍보} \rightarrow \text{민원}) = \sim(\sim \text{홍보} \vee \text{민원}) = \text{홍보} \wedge \sim \text{민원}$
- (3) $\sim \text{민원} \wedge \sim \text{홍보} \wedge \text{인사} \wedge \sim \text{기획}$
- (4) $\sim(\text{민원} \wedge \text{인사})$
- (5) 두 개 이하의 업무를 선호

갑은 기획 업무를 포함한 한 개 또는 두 개의 업무를 선호하며, 을은 조건 (1)에 의해 민원과 홍보 업무를 선호한다. 넷 중 세 개 이상의 업무를 선호하는 신입사원은 없으므로 을은 인사나 기획 업무를 선호할 수 없다.

[정답해설]

ㄴ. 적어도 두 명 이상의 신입사원이 홍보 업무를 선호한다.

> 현재 을이 홍보 업무를 선호하므로 우선 한 명의 신입사원이 홍보 업무를 선호한다. 또한 조건 (2)에 따라 홍보 업무는 선호하나 민원 업무는 선호하지 않는 신입사원이 있다. 을은 조건 (2)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을 이외의 다른 신입사원 중 조건 (2)에 해당하는 신입사원이 한 명 이상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두 명 이상의 신입사원이 홍보 업무를 선호함을 알 수 있다.

ㄷ. 조사 대상이 된 업무 중에, 어떤 신입사원도 선호하지 않는 업무는 없다.

> 갑이 기획 업무를, 을이 민원과 홍보 업무를 선호한다는 사실은 확정 사실이므로 인사 업무와 관련하여 선지의 정오를 판단한다. 조건 (3)에 의해 인사 업무만을 선호하는 신입사원이 있으므로 조사 대상이 된 업무 중에 어떤 신입사원도 선호하지 않는 업무는 없다.

[오답해설]

ㄱ. 어떤 업무는 갑도 을도 선호하지 않는다.

> 갑이 기획 업무를, 을이 민원과 홍보 업무를 선호한다는 사실은 확정 사실이므로 인사 업무와 관련하여 선지의 정오를 판단한다. 이때 을은 확실히 인사 업무를 선호하지 않지만 갑의 경우에는 알 수 없다. 인사 업무를 선호할 수도,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선지는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다.

문 20. ③

[정답해설]

ㄱ. 한 식물의 동일한 공변세포 안에 있는 칼륨이온의 양은, 햇빛이 있는 낮에 햇빛의 청색광만 차단하는 필름으로 식물을 덮은 경우가 덮지 않은 경우보다 적다.

> 햇빛의 청색광이 차단된다면 공변세포에 있는 양성자 펌프가 작동되지 않을 것이며, 양성자 펌프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공변세포 밖에 있는 칼륨이온이 공변세포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공변세포 안에 있는 칼륨이온의 양은 적어진다.

ㄴ. 호르몬 A를 분비하는 식물이 햇빛이 있는 낮에 보이는 기공 개폐 상태와 병원균에 감염된 식물이 햇빛이 없는 밤에 보이는 기공 개폐 상태는 다르다.

> 호르몬 A를 분비하는 식물은 햇빛이 있더라도 기공이 열리지 않는다. 한편 병원균에 감염된 식물은 독소 B로 인해 기공이 닫혀 있어야 하는 때에도 열리게 되므로, 햇빛이 없는 밤에도 기공이 열려 있을 것이다. 따라서 두 경우의 기공 개폐 상태는 다르다.

[오답해설]

ㄷ. 수분스트레스를 받은 식물에 양성자 펌프의 작동을 못하게 하면 햇빛이 있는 낮에 기공이 열린다.

> 수분스트레스를 받은 식물은 호르몬 A를 분비하며, 이는 공변세포에 있는 수용체에 결합하여 공변세포 안에 있던 칼륨이온과 염소이온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한다. 이에 따라 세포의 부피가 작아지며, 결국 햇빛이 있더라도 기공이 열리지 않는다. 따라서 수분스트레스를 받으면 햇빛이 있더라도 기공이 열리지 않는데, 여기에 기공이 열리는 것에 영향을 주는 양성자 펌프의 작동까지 막는다면 더욱 기공이 열릴 일이 없어진다.

문 21. ④

세 마리 수컷이 내는 소리가 선호되는 정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울음소리 톤: $C > A > B$

울음소리 빈도: $A > B > C$

[정답해설]

ㄴ. 상황 1에서 암컷에게 들려준 소리가 B, C인 경우 암컷이 B로, 상황 2에서는 A로 이동했다면, ㉠은 강화되지만 ㉡은 강화되지 않는다.

> 상황 1에서 암컷에게 들려준 소리가 B, C인데 암컷이 B로 이동했다면 울음소리 빈도를 판단 기준으로 택한 것이다. 그런데 상황 2에서 A로 이동했다는 것은 울음소리 빈도라는 판단 기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므로, ㉠은 강화되지만 ㉡은 강화되지 않는다.

ㄷ. 상황 1에서 암컷에게 들려준 소리가 A, C인 경우 암컷이 C로, 상황 2에서는 A로 이동했다면, ㉠은 강화되지 않지만 ㉡은 강화된다.

> 상황 1에서 암컷에게 들려준 소리가 A, C인데 암컷이 C로 이동했다면 울음소리 톤을 판단 기준으로 택한 것이다. 그런데 상황 2에서 A로 이동했다는 것은 울음소리 빈도를 판단 기준으로 바꾼 것이므로, ㉠은 강화되지 않지만 ㉡은 강화된다.

[오답해설]

ㄱ. 상황 1에서 암컷에게 들려준 소리가 A, B인 경우 암컷이 A로, 상황 2에서는 C로 이동했다면, ㉠은 강화되지 않지만 ㉡은 강화된다.

> 상황 1에서 암컷에게 들려준 소리가 A, B였다면 암컷은 두 측면 모두에서 우월한 A를 선택하게 된다. 이때 암컷이 어떤 판단 기준을 택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세 마리 수컷의 소리를 모두 들려주었을 때 판단 기준을 변화시켰는지 여부도 알 수 없다.

문 22. ㉔

[정답해설]

ㄱ. 색깔이 같은 두 빛이 각각 경로 1과 2를 통과했을 때, 경로 1을 통과한 빛이 경로 2를 통과한 빛보다 스크린의 오른쪽에 맺힌다면 ㉔은 강화되고 ㉕은 약화된다.

> 경로 1(물속)을 통과한 빛이 상대적으로 스크린의 오른쪽에 맺힌다는 것은 경로 1(물속)을 통과한 빛이 더 빨리 평면거울에 도달했다는 뜻이다. 즉 물속을 통과한 빛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이므로, 물속에서의 빛의 속도가 공기 중에서보다 더 빠르다고 보는 ㉔(입자이론)은 강화되고 ㉕(파동이론)은 약화된다.

ㄴ. 색깔이 다른 두 빛 중 하나는 경로 1을, 다른 하나는 경로 2를 통과했을 때, 경로 1을 통과한 빛이 경로 2를 통과한 빛보다 스크린의 왼쪽에 맺힌다면 ㉔은 약화되고 ㉕은 강화된다.

> 경로 1(물속)을 통과한 빛이 상대적으로 스크린의 왼쪽에 맺혔다는 것은 경로 1(물속)을 통과한 빛이 더 느리게 평면거울에 도달했다는 뜻이다. 이 경우, 입자이론은 빛의 속도가 색깔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며 물속에서의 빛의 속도가 공기 중에서보다 더 빠르다고 보므로, ㉔은 약화된다. 한편, 파동이론은 빛의 색깔에 따라 물속에서 파동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며 물속에서의 빛의 속도가 공기 중에서보다 더 느리다고 보므로, ㉕은 강화된다.

ㄷ. 색깔이 다른 두 빛이 모두 경로 1을 통과했을 때, 두 빛이 스크린에 맺힌 위치가 다르다면 ㉔은 약화되고 ㉕은 강화된다.

> 색깔이 다른 두 빛이 똑같이 경로 1(물속)을 통과했을 때, 두 빛이 스크린에 맺힌 위치가 다르다는 것은 빛의 색깔, 즉 파장에 따라 파동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뜻이므로, 이를 주장한 ㉕은 강화되고, 빛의 색깔과 파동의 속도가 무관하다고 보는 ㉔은 약화된다.

따라서 ㄱ, ㄴ, ㄷ 모두 적절하다.

문 23. ②

[정답해설]

② 민원인의 부정 수령 판정 여부, 민원인의 이의 제기 여부, 이의 제기 기각 건에 민원인이 제기한 건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갑’은 ‘민원인의 자격 요건에 변동 사항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앞서 제시된 자격 요건, 즉 ‘민원인의 농업인 및 농지 등록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한 사항’만 확인하면 된다.

‘을’은 ‘제한 사항’에 대해 ‘전년도에 A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라 하였다. 다만 부정 수령으로 판정되어도 수령인이 일정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 제기 심의 기간에는 수령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따라서 ‘민원인의 부정 수령 판정 여부’와 ‘민원인의 이의 제기 여부’는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

만약 민원인이 부정 수령 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해 신청 기간 만료 전에 이의 제기를 했다면, 마지막으로 ‘이의 제기 기각 건에 민원인이 제기한 건이 포함되었는지’만 파악하면 된다. 왜냐하면 이의 제기가 인용되거나 심사 진행 중이라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지 않은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문 24. ⑤

[정답해설]

⑤ 법령의 범위에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반하는 학칙은 교육법에 저촉됩니다

> 빈칸 이전의 대화에서는 갑이 조례가 학칙과 어긋나는 것이 있을 때의 법적 판단을 묻고 있으며, 빈칸의 대답을 들은 갑은 조례가 학교 운영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질문하고 있다. 이후 을의 마지막 대사에서 ‘학칙을 제정할 때에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반드시 지킬 것을 요구하는 최소한의 한계’가 있다고 하며 「학생인권조례」 또한 교육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반하는 학칙은 교육법에 저촉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오답해설]

① 학칙의 제정을 통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과 책임뿐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갑의 질문인 조례가 학칙에 어긋나는 경우의 법적 판단에 대한 대답이 제시되지 않아 빈칸에 들어가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② 법령에 조례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지만 교육법의 체계상 「학생인권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 을의 대사에서 교육법 ‘제8조제1항에서의 법령에는 조례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라는 부분을 볼 때, 법령에 조례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빈칸에 들어가기 적절하지 않다.

③ 교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조례는 입법 목적이나 취지와 관계없이 법령에 포함됩니다

> 교육법 제10조제2항의 조례는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는 위임 입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교육법 제10조제2항의 내용이 제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례가 입법 목적이나 취지와 관계없이 법령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제시된 지문을 통하여서는 알 수 없다.

④ 「학생인권조례」에는 교육법에 어긋나는 규정이 있지만 학칙은 이 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 「학생인권조례」는 교육법 제18조4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한 것을 따라 같은 취지로 제정된 조례이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법에 어긋나는 규정이 있다는 내용은 지문을 통해 알 수 없다.

문 25. ④

[정답해설]

ㄴ. 쟁점 2와 관련하여, 갑은 B를 △△국 국민이라고 생각하지만 을은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면, 갑과 을 사이의 주장 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다.

> B는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갑은 B를 △△국 국민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B를 비거주자로 보는 반면, 을은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B를 비거주자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다.

ㄷ. 쟁점 3과 관련하여, D의 길거리 음악 연주가 영업활동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다면, 갑의 주장은 옳고 을의 주장은 옳다.

> D는 5개월째 독일에서 길거리 음악 연주를 하고 있다. 외국인과 혼인하여 5개월째 체재하고 있으므로 제○○조 제1항 제3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길거리 음악 연주가 영업활동에 해당한다면 D는 비거주자가 되지만, 영업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D는 비거주자가 아니다. 길거리 음악 연주가 영업활동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다면, D는 비거주자가 아니므로 갑의 주장은 옳고 을의 주장은 옳다. ★

[오답해설]

ㄱ. 쟁점 1과 관련하여, 일시 귀국하여 체제한 '3개월 이내의 기간'이 귀국할 때마다 체제한 기간의 합으로 확정된다면, 갑의 주장은 옳고 을의 주장은 옳다.

> 일시 귀국하여 체제한 '3개월 이내의 기간'이 귀국할 때마다 체제한 기간의 합으로 확정된다면, 쟁점 1에서 A는 매년 4개월씩 국내에서 체제한 것이 되므로 A가 외국에서 체제한 기간은 2년간 귀국한 기간을 뺀 나머지인 약 1년 5개월이 된다.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어야 비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A는 비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경우 갑의 주장은 옳고 을의 주장이 옳다.